
2020년 중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I. 2020년중 세계경제 동향

1. 개황
2. 국가별 동향
3. 국제원자재시장

II. 향후 전망

1. 개황
2. 국가별 전망
3. 국제원자재시장

I. 2020년중 세계경제 동향

1. 개황

2020년중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축¹⁾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로지역은 2/4분기중 봉쇄조치로 급격하게 위축된 이후 3/4분기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그러나 4/4분기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유로지역은 개선흐름이 약화되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비 개선이 더디면서 미약한 경기흐름을 지속하였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은 연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방역과 생산활동 조기 정상화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여타 신흥국의 경우 인도는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2/4분기 GDP가 G20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3/4분기에도 바이러스 확산세 심화로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연되었다. ASEAN 5개국도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사정을 보면 주요국 정부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유로지역과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각각 8월과 10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1월에는 중국도 2009.11월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국제유가(Dubai유 기준, 배럴당)는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40달러 내외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한 후 11월 들어 백신 개발 및 보급 소식, OPEC+의 생산 조절, 미국의 원유생산 감소 등으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연말에는 50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2. 국가별 동향

가. 미국

2020년중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의 영향으로 큰 폭의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에는 팬데믹 충격에 따른 갑작스런 경제봉쇄 및 대규모 실업으로 소비와 생산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5.0%, -31.4%를 기록하였다. 비록 대규모 경기부양책, 완화적 통화정책,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3/4분기에는 33.4%로 반등하였으나 4/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1) IMF 통계 입수가 가능한 1980년 이후 종전까지 세계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던 해는 2009년(-0.1%)이 유일했다. 2020년중에는 감소폭이 2009년보다 현저히 큰 4%대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IMF -4.4%, World Bank -4.3%, OECD -4.2%)

〈표 1〉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연율, %, %p)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3.0	2.2	2.9	1.5	2.6	2.4	-5.0	-31.4	33.4
			(0.7)	(0.4)	(0.6)	(0.6)	(-1.3)	(-9.0)	(7.5)
개인소비지출	2.7	2.4	1.8	3.7	2.7	1.6	-6.9	-33.2	41.0
민간투자	6.3	1.7	3.9	-5.8	1.8	-3.7	-9.0	-46.6	86.3
(고정투자)	5.2	1.9	2.9	-0.4	2.4	1.0	-1.4	-29.2	31.3
-구조물투자	3.7	-0.6	8.2	1.6	3.6	-5.3	-3.7	-33.6	-17.4
-설비투자	8.0	2.1	2.0	-3.8	-1.7	-1.7	-15.2	-35.9	68.2
-지적재산권투자	7.8	6.4	4.5	4.1	5.3	4.6	2.4	-11.4	8.4
-주택투자	-0.6	-1.7	-1.7	-2.1	4.6	5.8	19.0	-35.6	63.0
(재고증감) ²⁾	0.2	-0.0	0.2	-1.0	-0.1	-0.8	-1.3	-3.5	6.6
순수출 ²⁾	-0.3	-0.2	0.6	-0.8	0.0	1.5	1.3	0.6	-3.2
(수 출)	3.0	-0.1	1.8	-4.5	0.8	3.4	-9.5	-64.4	59.6
(수 입)	4.1	1.1	-2.1	1.7	0.5	-7.5	15.0	-54.1	93.1
정부지출	1.8	2.3	2.5	5.0	2.1	2.4	1.3	2.5	-4.8

주: 1) ()내는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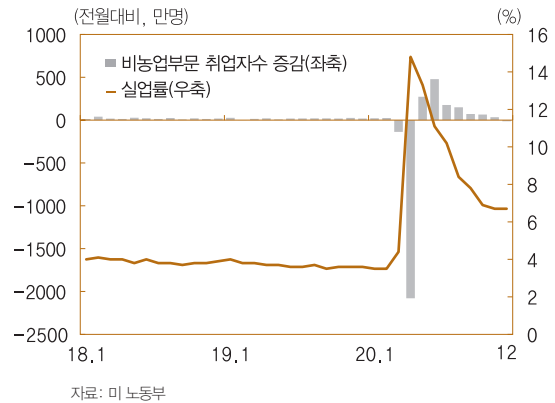
2)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미 상무부

고용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률이 4월 중 14.7%까지 급등하는 등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빠르게 반등한 후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졌다. 다만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0월 이후 개선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주택경기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량은 2~4월중 위축되었다가 5월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하반기에는 전년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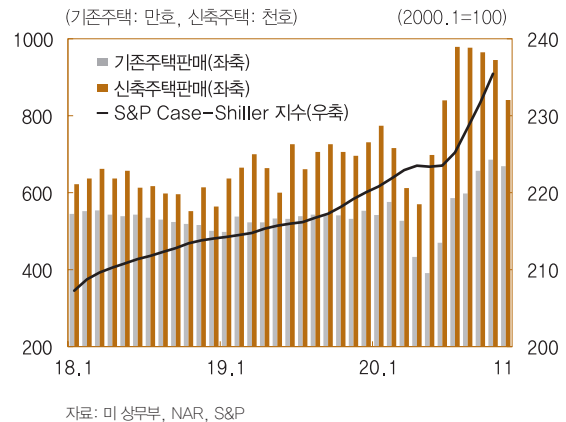
〈그림 1〉

고용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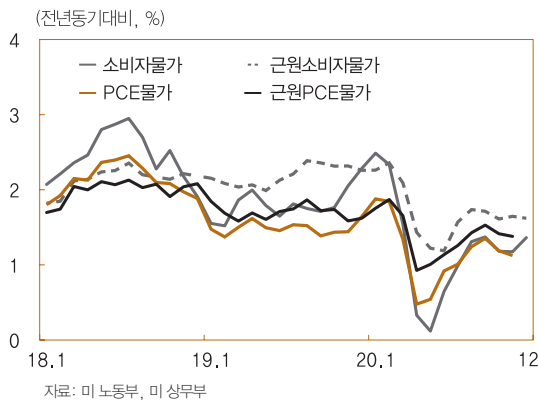
주택 판매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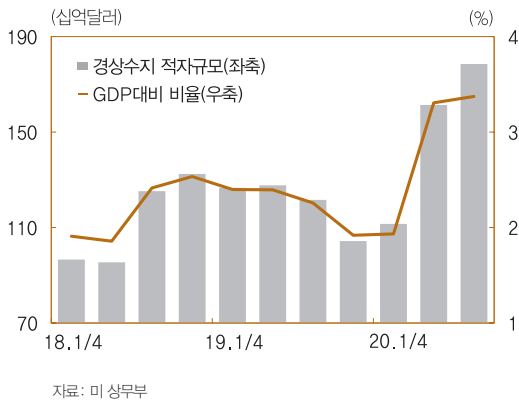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은 상반기중 유가 하락,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0%대로 하락하였다가 하반기 들어 수요가 회복되면서 1% 초반대로 상승하였다. 근원소비자물가(식료품·에너지품목 제외) 상승률은 1% 중반대로 떨어졌다. PCE(개인소비지출) 물가는 1% 초반대로 하락하면서 연준 물가목표(2.0%)를 밑돌았고, 근원 PCE 물가도 1% 초반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대외거래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1/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역량 위축 등의 영향으로 축소되었으나 2/4분기부터 의료용품 수요 급증,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큰 폭 확대되었다.

〈그림 3〉 물가



〈그림 4〉 경상수지



나. 유로지역

2020년 유로지역 경제는 상반기 중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하는 등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부진하였다. 코로나19 1차 확산의 정점(4월)을 지나면서 내수와 대외거래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3/4분기에는 성장률이 반등하였다. 그러나 10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각국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개선세가 다시 주춤한 상황이다.

〈표 2〉 경제성장률¹⁾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9	1.3	0.5	0.2	0.2	0.1	-3.7	-11.7	12.5
			(1.9)	(0.8)	(0.8)	(0.5)	(-14.1)	(-39.2)	(60.0)
민간소비	1.5	1.3	0.6	0.2	0.3	0.1	-4.5	-12.4	14.0
정부소비	1.2	1.9	0.6	0.4	0.7	0.3	-0.6	-2.2	4.8
고정투자	3.2	5.8	-2.1	6.8	-5.4	6.2	-5.7	-16.0	13.4
수 출	3.6	2.5	1.1	0.0	0.6	0.0	-3.8	-18.9	17.1
수 입	3.7	3.9	-0.8	3.3	-2.2	2.2	-3.0	-18.2	12.3

주: 1) ()내는 전기대비연율
자료: EU 통계청

국가별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비교적 크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성장률 하락폭이 컸던 반면 독일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3〉

주요국별 경제성장률¹⁾²⁾

(전기대비, %)

	2018	연간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독 일 [28.9]	1.3	0.6	0.6	-0.5	0.3	0.0	-1.9	-9.8	8.5
			(2.5)	(-2.0)	(1.2)	(-0.1)	(-7.4)	(-33.8)	(38.5)
프 랑 스 [20.3]	1.8	1.5	0.5	0.3	0.1	-0.2	-5.9	-13.8	18.7
			(2.1)	(1.2)	(0.6)	(-0.7)	(-21.6)	(44.8)	(98.3)
이탈리아 [15.0]	0.9	0.3	0.2	0.2	0.0	-0.3	-5.5	-13.0	15.9
			(0.7)	(0.8)	(0.2)	(-1.3)	(-20.2)	(-42.7)	(80.4)
스 페 인 [10.4]	2.4	2.0	0.5	0.4	0.4	0.4	-5.3	-17.9	16.4
			(2.1)	(1.5)	(1.4)	(1.7)	(-19.4)	(-54.5)	(83.7)
포르투갈 [1.8]	2.8	2.2	0.7	0.5	0.4	0.7	-4.0	-13.9	13.3
			(2.7)	(2.2)	(1.6)	(2.7)	(-14.9)	(-45.1)	(64.5)
그 리 스 [1.5]	1.6	1.9	0.9	0.5	-0.7	0.5	0.1	-14.1	2.3
			(3.7)	(2.1)	(-2.7)	(1.9)	(0.5)	(-45.7)	(9.5)

주: 1) 계절변동조정 후, () 내는 전기대비연율

2)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중 명목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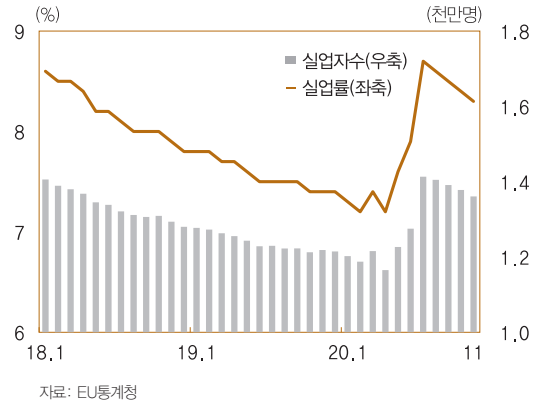
자료: EU 통계청

실업률은 2020년 초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팬데믹발 경기 위축으로 2/4분기 중 크게 상승하였다가 8월 이후에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회원국들이 고용유지제도를 적극 활용²⁾하면서 경기 위축 정도에 비해 실업률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국가별 실업률³⁾을 보면 독일(4.2%), 네덜란드(3.8%) 등은 유로지역 평균(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스페인(15.5%), 프랑스(8.1%), 이탈리아(9.1%) 등은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HICP 기준)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대내외 수요 위축, 에너지 가격 하락, 유로화 강세 등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크게 하락하여 유로지역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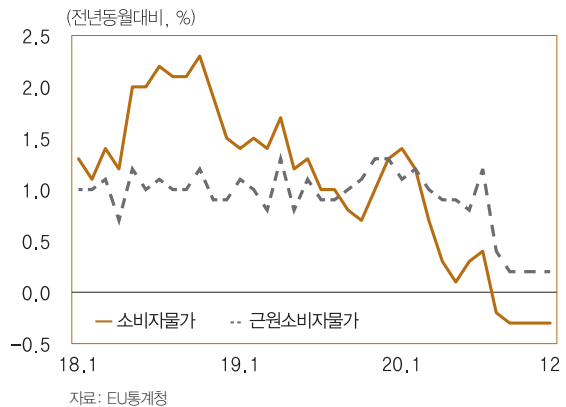
〈그림 5〉

고용



〈그림 6〉

물가



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대외거래의 경우 수출입(통관기준) 모두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5월 이후 크게 반등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재확산 등으로 8월 이후 개선세가 다소 약화된 모습이다. 경상수지는 수입보다 수출 증가세가 커지면서 2/4분기 이후 흑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 EU는 실직위험완화 긴급지원(SURE)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각국의 고용유지제도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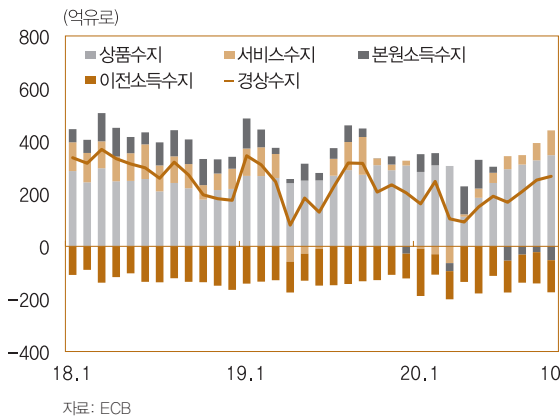
3) 2020년 1~11월 중 평균을 의미한다

〈그림 7〉 수출입¹⁾



의 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한 이후 2/4분기 들어 일본전역 긴급사태 선포⁴⁾, 올림픽 개최 연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며 성장률이 -8.3%로 크게 하락하였다. 3/4분기에는 긴급사태 해제 이후의 외부 활동 증가 및 Go-to-Travel⁵⁾ 등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중국⁶⁾을 중심으로 개선되며 플러스(+5.3%)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4/4분기에는 11월 이후 급격한 감염증 재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⁷⁾ 등에 따라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경상수지



〈표 4〉 경제성장률¹⁾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0.6	0.3	0.6	0.1	0.2	-1.9	-0.5	-8.3	5.3	
			(0.3)	(0.6)	(1.3)	(-1.1)	(-2.0)	(-10.3)	(-5.7)	
민 간 소 비	0.3	-0.3	-0.1	0.4	0.5	-3.1	-0.6	-8.3	5.1	
민간주택투자	-6.4	3.9	2.7	1.6	0.0	-1.8	-3.7	0.5	-5.8	
민간설비투자	1.7	0.1	-0.7	0.2	1.0	-4.6	1.4	-5.7	-2.4	
정 부 소 비	1.0	1.9	0.4	0.6	0.8	0.4	-0.3	0.3	2.8	
공 공 투 자	0.6	1.3	2.2	-0.7	1.2	1.2	0.0	1.9	0.5	
순 수 출 ²⁾	0.0	-0.2	0.4	-0.3	-0.3	0.6	-0.4	-3.1	2.7	
수 출	3.8	-1.4	-1.6	-0.1	-0.5	0.2	-5.3	-17.1	7.0	
수 입	3.8	-0.4	-3.9	1.7	1.0	-3.1	-3.1	1.4	-8.8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2)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다. 일본

2020년 일본 경제는 상반기중 크게 위축된 이후 더딘 개선세를 보이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4분기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0.5%

4)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4.7일 도쿄 등 일부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여 4.16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화점·영화관 등의 시설 휴업 요청 등이 이루어졌다(5.25일 해제).

5) 국내 여행 장려를 위해 정부가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7.22일 도쿄를 제외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였다(10.1일 도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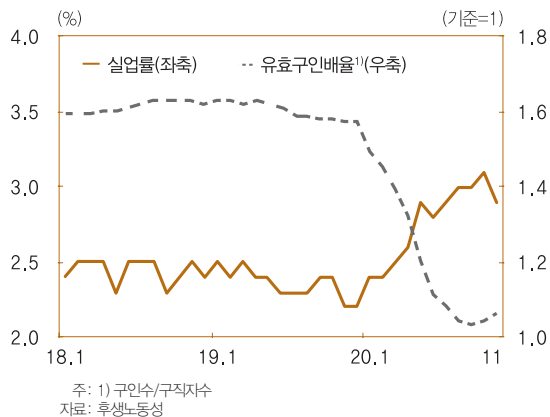
6) 대중국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9(5월) → -0.2(6월) → 8.2(7월) → 5.1(8월) → 14.0(9월)

7) Go-to-Travel 지원대상에서 오사카·삿포로(11.24일) 및 도쿄(12.18일)행 여행이 제외되고, 심야영업(음식점 등) 단축이 오사카(11.27일), 도쿄(11.28일) 등에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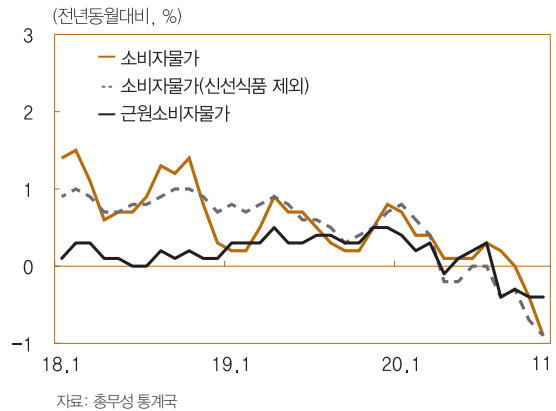
고용여건도 경제활동 위축의 영향으로 악화되었다. 취업자수(계절조정)가 11월중 6,701만명으로 전년도 말(6,765만명)에 비해 64만명 감소하였다. 전년도 말까지 2%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실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3% 내외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유효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도 전년도 말 1.57에서 11월중 1.06까지 하락하면서 노동수요 우위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상반기중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Go-to-Travel 정책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10월 이후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일본은행이 물가안정목표(2%)로 설정한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월 이후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림 9〉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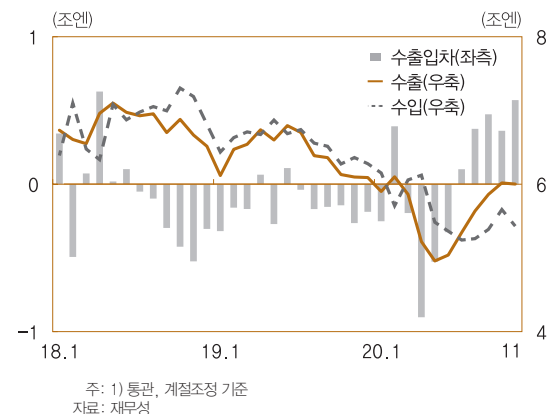


〈그림 10〉 물가



대외거래의 경우 수출입차(통관기준)가 상반기중 수출 감소액이 수입 감소액을 상회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경상수지는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지속한 데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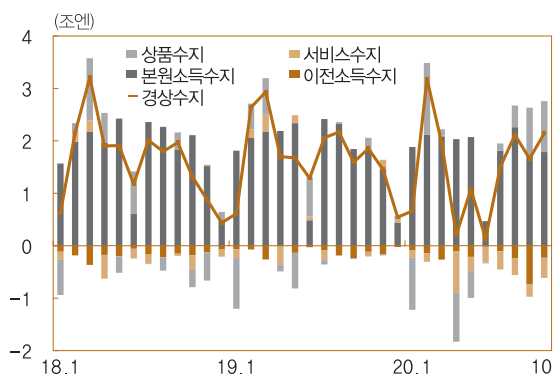
〈그림 11〉 수출입¹⁾



8) 동 정책에 따라 11월 숙박비는 전년동기대비 34% 하락하였다(기여도 -0.4%p).

〈그림 12〉

경상수지



자료: 재무성

라. 중국

2020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연초에 크게 부진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방역과 생산활동 조기 정상화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생산은 2/4분기부터, 소매판매는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는 부동산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회복하였다. 수출은 생산 조기정상화, 주요국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방역용품,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내수회복에 따라 수입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경상수지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해외여행 제약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도 축소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되었다.

〈표 5〉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6.7	6.0	6.4	6.2	6.0	6.0	2.3	-6.8	3.2	4.9	6.5
산업생산	6.2	5.7	6.5	5.6	5.0	5.9	2.8	-8.4	4.4	5.8	7.1
소매판매	9.0	8.0	8.3	8.5	7.6	7.7	-3.9	-19.0	-4.0	0.9	4.6
고정자산투자 ¹⁾	5.9	5.4	6.3	5.8	5.4	5.4	2.9	-16.1	-3.1	0.8	2.9
수출(통관)	9.9	0.5	1.4	-1.0	-0.3	2.0	3.6	-13.3	0.1	8.8	17.0
수입(통관)	15.8	-2.8	-4.1	-3.6	-6.2	3.4	-1.1	-3.0	-9.7	3.2	5.3
무역수지 ²⁾	3,509	4,211	727	1,039	1,178	1,267	5,381	132	1,547	1,583	2,120
경상수지 ²⁾	255	1,413	301	305	402	405	..	-3371	1,102	992	..

주: 1) 분기별은 누계 기준 2) 억달러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고용상황은 신규취업자수가 지난해보다 부진한 가운데 연초 급등한 실업률은 하락세로 전환하여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는 1,186만명을 기록하여 작년 수준(1,352만명)을 하회하였으며 도시조사실업률(5.6%)은 전년(5.2%)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코로나가 정점이던 2월(6.2%) 이후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 6〉

고용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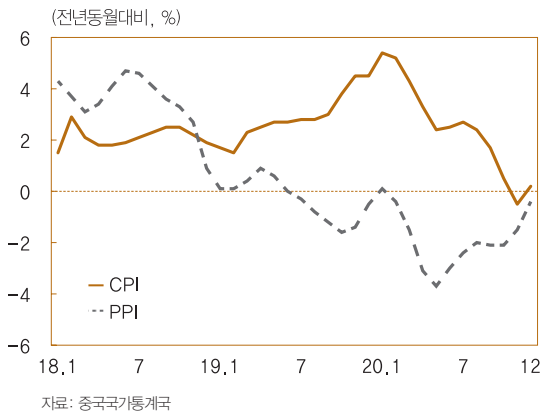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신규취업자수 ¹⁾ (만명)	1,361	1,352	413	360	255	1,186	229	335	334	288
도시조사실업률(%)	4.9	5.2	5.0	5.2	5.1	5.6	5.8	5.9	5.6	5.2

주: 1) 도시지역 기간중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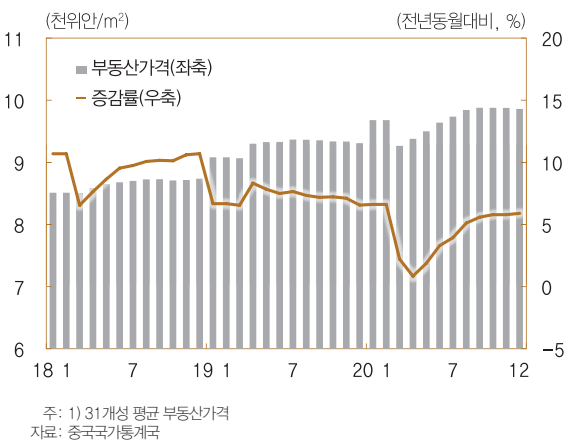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공급증가, 유가하락 등에 따라 오름세가 하반기중 크게 둔화되는 모습(1~6월 3.9% → 7~12월 1.2%)을 보였다. 생산자물가는 위안화 절상, 유가 약세 등으로 2월 이후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지며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그림 13〉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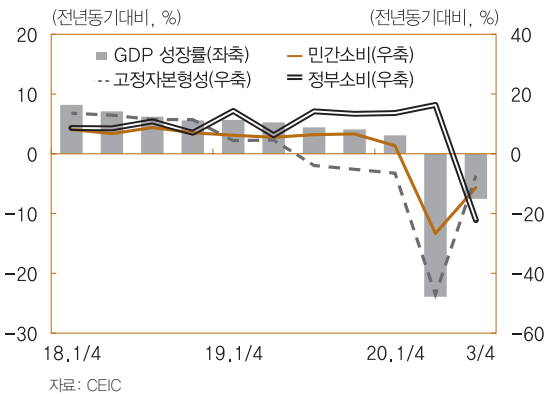
〈그림 14〉 부동산가격¹⁾ 및 증감률



마. 인도 및 ASEAN 5개국

2020년 인도의 GDP성장률(회계연도 기준)은 역대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인도 전역에 걸쳐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투자도 부진하였다. 더불어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출과 수입 역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4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1996년 분기 성장률 편제 이후 역대 최저치인 -23.9%를 기록하였으며, 3/4분기 들어서도 바이러스 확산세 심화¹⁰⁾로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7.5%를 기록하는 등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상수지는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수출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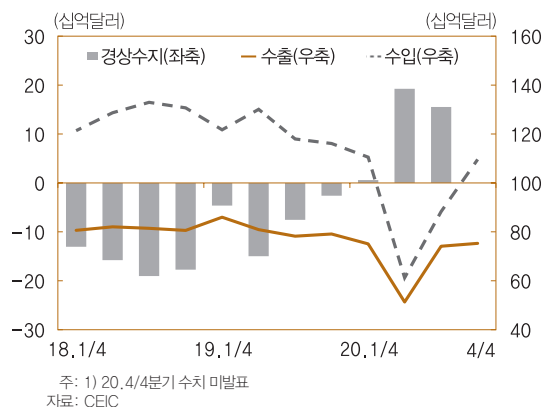
〈그림 15〉 인도 경제성장률



9) 주요 국제기구의 2020 회계연도 GDP성장률 전망치는 약 -10% 전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IMF(2020.10월) -10.3%, OECD(2020.12월) -9.9%, 세계은행(2021.1월)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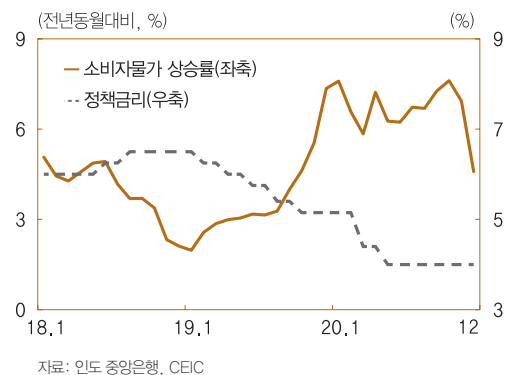
10) 인도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일평균)는 2020.2/4분기중 6,418명에서 3/4분기중 6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역대 최고 발생자수는 97,894명(2020.9.16일)이었다.

〈그림 16〉 인도 경상수지¹⁾ 및 수출입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인도중앙은행의 물가목표범위 ($4 \pm 2\%$) 상단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연중 지속¹¹⁾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작동 차질 및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으로 음·식료품 가격¹²⁾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17〉 인도 소비자물가 및 정책금리



2020년 ASEAN 5개국 경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¹³⁾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중순경부터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실시되면서 각국 모두 2/4분기중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6월을 전후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감염증의 확산 양상 등에 따라 국별로 다소 상이한 경기 개선 속도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극심한 내수 위축이 이어지는 등 부진하였다. 말레이시아는 5월초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된 이후 수출 및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이다 9월말 2차 확산이 발생한 이후 내수가 다시 위축되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필리핀 역시 전면적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고 해외송금 감소, 태풍 피해 등이 더해지면서 2/4분기에 이어 3/4분기까지 연속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태국도 해외 관광객 감소, 국내정치 불안 및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감염증 확산을 억제한 데 힘입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표 7〉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5.0	..	3.0	-5.3	-3.5	..
태국	2.4	..	-2.0	-12.1	-6.4	..
말레이시아	4.3	..	0.7	-17.1	-2.7	..
필리핀	6.0	..	-0.7	-16.9	-11.5	..
베트남	7.0	2.9	3.7	0.4	2.7	4.5

자료: 각국 통계청

11) 인도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5.8%)과 12월(4.6%)을 제외하고는 모두 6~7%대 수준을 나타내었다.

12) 음·식료품의 소비자물가지수내 비중치는 45.9%에 달한다.

13) IMF는 아세안 5국의 2020년 GDP성장률을 -3.4%로 전망하였다(2020. 10월).

ASEAN 5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하락 압력이 이어진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태국도 내수 부진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 오름폭이 축소된 가운데 유가 하락 등으로 교통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연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식료품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표 8〉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2.8	2.0	2.9	2.3	1.4	1.6
태국	0.7	-0.8	0.4	-2.7	-0.7	-0.4
말레이시아	0.7	..	0.9	-2.6	-1.4	..
필리핀	2.5	2.6	2.7	2.3	2.5	3.1
베트남	2.8	3.2	5.6	2.8	3.2	1.4

자료: Bloomberg

2020년 ASEAN 5개국의 경상수지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상품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적자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도 3/4분기 이후

수출 회복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 및 이전소득수지 개선으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조적 경상수지 흑자국인 태국은 해외관광객 유입 감소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2/4분기 이후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경우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며, 베트남은 수출 호조세 지속 등으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경상수지

(억달러)

	2019	2020		
	연간	1/4	2/4	3/4
인도네시아	-304	-37	-29	10
태국	370	89	10	66
말레이시아	121	22	18	63
필리핀	-34	2	44	41
베트남	125	32	-5	84

자료: Bloomberg, CEIC

〈표 10〉 수출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6.8	..	1.2	-12.5	-6.5	..
태국	-2.5	..	1.0	-15.2	-7.8	..
말레이시아	-3.2	..	-3.3	-18.2	4.1	..
필리핀	2.3	..	-5.1	-29.2	-6.5	..
베트남	8.4	6.5	7.8	-6.9	10.6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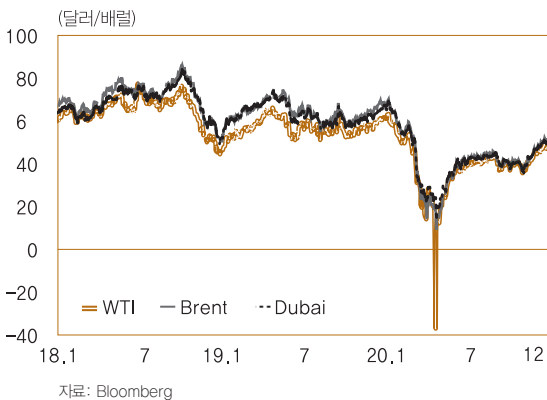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국제원자재시장

(국제유가)

국제유가(Dubai유 기준, 배럴당)는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¹⁴⁾하였다가 40달러 내외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한 후 10월말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월 들어서는 다시 기름세로 돌아서면서 연말에는 3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및 보급 소식 등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가 크게 확산된 데다 OPEC+의 생산 조절¹⁵⁾,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생산 감소¹⁶⁾ 등으로 수급여건도 꾸준히 개선된 것이 주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말 국제유가는 여전히 전년말 수준을 20% 이상 하회하고 있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비철금속, 곡물 등 기타원자재 가격들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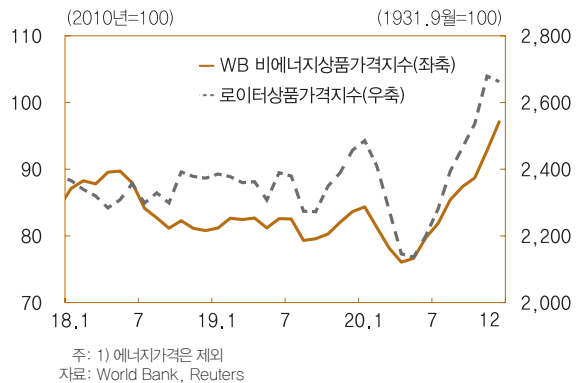
〈그림 18〉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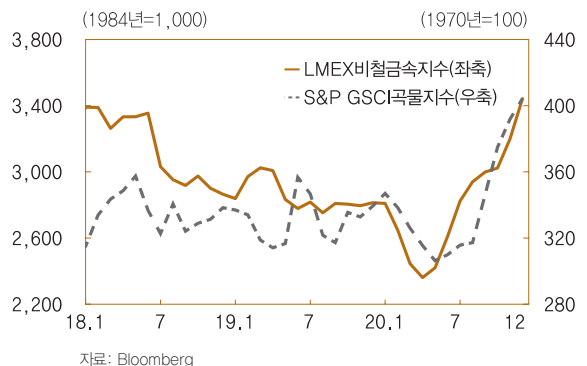
(기타원자재가격)

기타원자재가격(World Bank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¹⁷⁾ 기준)도 3~4월중 큰 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대부분 품목이 연초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3% 상승한 반면 연말 가격 기준으로는 전년말대비 16.1%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그림 19〉 국제원자재가격지수¹⁾



〈그림 20〉 곡물 및 비철금속가격



14) 연초 배럴당 60달러 중후반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3월 중순부터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4월에 배럴당 10달러대 수준까지 급락하여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월 평균 기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WTI 선물(최근월물)은 4.20일 이례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37.63달러/배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선물 만기(4.21일)를 앞두고 현물 인수 회피를 위한 매물이 대거 출회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15) OPEC+(OPEC 및 10개 비OPEC 산유국)는 2021.1월부터 감산규모(일평균 770만배럴 → 720만배럴)를 축소하기로 합의(20.12.3일)하였으나 당초 감산목표(580만배럴)보다는 소폭 조정하는 등 감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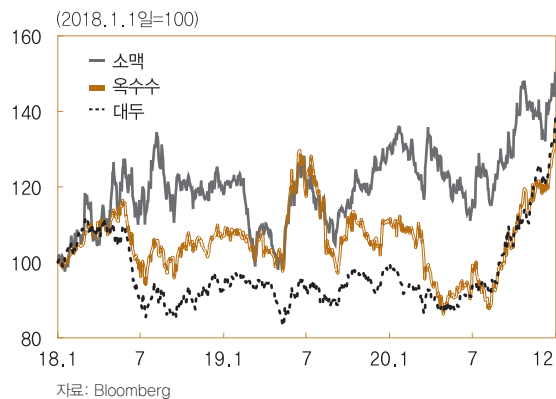
16) 미국의 원유생산은 시추활동 위축 등으로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기조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17) World Bank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 구성비(%): 농산물 64.8, 금속 31.6, 비료 3.6

품목별로 보면 먼저 곡물가격(S&P GSCI곡물지수 기준)은 코로나19 확산, 바이오에탄올 산업 부진에 따른 옥수수 수요 감소 등으로 상반기에 큰 폭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 홍수에 따른 작황 부진, 돼지사육 두수 회복¹⁸⁾, 미국산 농산물 구매 합의 이행 등으로 중국 곡물 수입이 크게 확대된 데 힘입어 오름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해 라니냐¹⁹⁾ 등 기상악화가 빈번해지며 미국, 남미 등 주요 생산국의 곡물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연말까지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격흐름을 반영하여 연평균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1% 상승에 그쳤으나 연말 기준으로는 전년말대비 25.4% 상승하였다.

비철금속가격(LMEX비철금속지수 기준)은 4월까지 큰 폭 하락하면서 2016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5월 들어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중국의 빠른 회복세 전환 등으로 반등하였다. 이후 주요국 제조업 경기 회복, 남미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 우려²⁰⁾,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등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초 수준을 큰 폭 상회하였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1.3% 하락한 반면 연말 기준으로는 20.1% 상승하면서 곡물 등과 유사한 가격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림 21〉 주요 곡물가격(소맥, 옥수수, 대두)



〈그림 22〉 주요 비철금속가격(구리, 알루미늄, 니켈)



18) 중국 돼지 사육두수는 2018.9월말 4억 3천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3억 1천마리까지 급감하였으나 2020.9월말 기준 3억 7천만마리까지 회복하였다.
19)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0.5℃ 이상 낮은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으로 세계기상기구(WMO)가 2020.10월 라니냐 발생을 발표한 가운데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동 현상이 2021.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2020.12월).
20) 코로나19 확산, 정정불안 등으로 세계 2위 구리 생산국 페루의 주요 광산에서 작업 차질이 발생하였다.

II. 향후 전망

1. 개황

2021년중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교역도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부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은 ECB의 추가 완화정책,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소비부진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미약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여타 신흥국의 경우 인도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으로, ASEAN 5개국 역시 대외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대체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과 함께 OPEC+의 감산정책 유지, 미 셰일생산 둔화 등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기조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성장률 및 교역신장률 전망

(전년대비, %)

	세계	선진국	신흥국	교역신장률
2019년 ¹⁾	2.8	1.7	3.7	1.0
2020년 ²⁾				
IMF	-4.4	-5.8	-3.3	-10.4
OECD ²⁾	-4.2	-5.5	-3.0	-10.3
World Bank	-4.3	-5.4	-2.6	-9.5
IB(6개 기관) 평균 ³⁾	-3.6	-	-	-
2021년 ³⁾				
IMF	5.2	3.9	6.0	8.3
OECD ²⁾	4.2	3.3	5.1	3.9
World Bank	4.0	3.3	5.0	5.0
IB(6개 기관) 평균 ³⁾	5.9	-	-	-

주: 1) IMF 기준

2) 선진국은 OECD 회원국 기준, 신흥국은 OECD 비회원국 기준

3) 2021.1월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10월)

OECD Economic Outlook(2020,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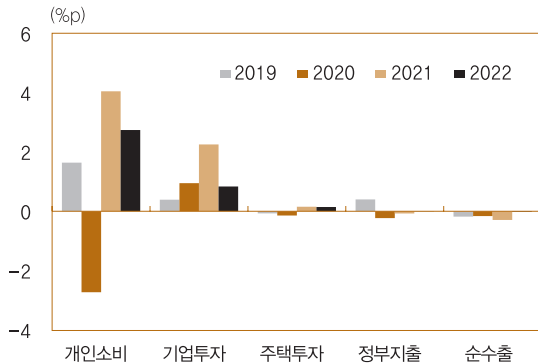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2021, 1월)

2. 국가별 전망

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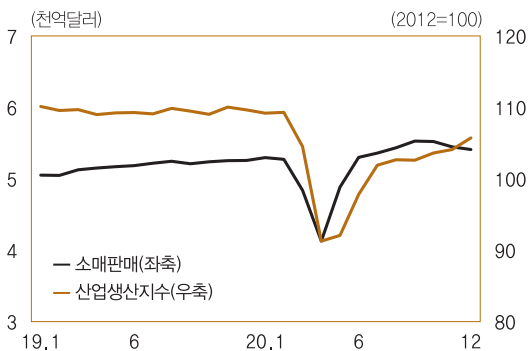
미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1/4분기까지 지속되었으나 백신 보급, 경제활동 정상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중 무역 및 외교갈등 심화 소지, 백신 보급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그림 23〉 부문별 성장률 전망¹⁾



주: 1)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미 상무부, Goldman Sachs, 자체추정

〈그림 24〉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지수



자료: 미 인구통계국, 미 연준

〈표 12〉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20 ^{e)}	2021 ^{f)}	2022 ^{g)}
IMF	(2020.10)	-4.3	3.1	2.9
OECD	(2020.12)	-3.7	3.2	3.5
Global Insight	(2020.12)	-3.4	4.3	3.6
80개 IB 평균	(2021. 1)	-3.5	3.9	3.1
미 연준 ¹⁾	(2020.12)	-2.5~-2.2	3.7~5.0	3.0~3.5

주: 1) 4/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각 기관, Bloomberg

물가(소비자물가 및 근원PCE물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상승률이 하락하였으나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금년에는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물가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20 ^{e)}	2021 ^{f)}	2022 ^{g)}
소비자물가				
IMF	(2020.10)	1.5	2.8	2.1
70개 IB 평균	(2021. 1)	1.2	2.0	2.1
근원PCE물가				
미 연준 ¹⁾	(2020.12)	1.2	1.7~1.9	1.8~2.0
56개 IB 평균	(2021. 1)	1.4	1.7	1.8

주: 1) 4/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각 기관, Bloomberg

나.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로 경기가 일시 위축되었으나 점차 개선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연된 소비가 재개되고 민간투자도 반등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²¹⁾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백신 접종 시기 등 코로나19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은 성장경로의 상·하방 리스크로 내재해 있다.

21)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12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규모를 1조 3,500억유로에서 1조 8,500억유로로 확대하였고, EU 정상회의는 7,500억유로(보조금 3,900억유로, 대출 3,600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최종 승인(12.11일)하였다.

〈표 14〉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20 ^{e)}	2021 ^{f)}	2022 ^{g)}
EU 집행위원회	(2020.11)	-7.8	4.2	3.0
ECB	(2020.12)	-7.3	3.9	4.2
World Bank	(2021. 1)	-7.4	3.6	4.0
IMF	(2020.10)	-8.3	5.2	3.1

〈표 15〉

수요부문별 전망¹⁾

(전년대비, %)

	2020 ^{e)}	2021 ^{f)}	2022 ^{g)}
실질 GDP	-7.8 [-7.3]	4.2 [3.9]	3.0 [4.2]
민간소비	-8.7 [-8.3]	4.3 [4.3]	3.3 [5.7]
정부소비	1.9 [1.5]	2.3 [2.5]	1.0 [0.6]
고정투자	-11.2 [-10.1]	6.1 [5.0]	4.2 [6.5]
수출	-11.5 [-11.0]	6.2 [6.5]	4.7 [4.9]
수입	-10.1 [-10.7]	6.0 [6.3]	4.7 [6.1]

주 : 1) EU 집행위(2020.11월), [] 내는 ECB 전망(2020.12월)

금년중 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독일, 프랑스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겠으나 관광업 등 대면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글로벌 여행규제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20 ^{e)}	2021 ^{f)}	2022 ^{g)}
독일	OECD (2020.12)	-5.5	2.8	3.3
	EU 집행위원회 (2020.11)	-5.6	3.5	2.6
	IMF (2020.10)	-6.0	4.2	3.1
프랑스	OECD (2020.12)	-9.1	6.0	3.3
	EU 집행위원회 (2020.11)	-9.4	5.8	3.1
	IMF (2020.10)	-9.8	6.0	2.9
이탈리아	OECD (2020.12)	-9.1	4.3	3.2
	EU 집행위원회 (2020.11)	-9.9	4.1	2.8
	IMF (2020.10)	-10.6	5.2	2.6
스페인	OECD (2020.12)	-11.6	5.0	4.0
	EU 집행위원회 (2020.11)	-12.4	5.4	4.8
	IMF (2020.10)	-12.8	7.2	4.5
포르투갈	OECD (2020.12)	-8.4	1.7	1.9
	EU 집행위원회 (2020.11)	-9.3	5.4	3.5
	IMF (2020.10)	-10.0	6.5	4.8
그리스	OECD (2020.12)	-10.1	0.9	6.6
	EU 집행위원회 (2020.11)	-9.0	5.0	3.5
	IMF (2020.10)	-9.5	4.1	5.6

고용상황의 경우 경기 회복속도가 더딘 데다 고용유지 정책이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산업간 인력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

실업률 전망

(%)

	(전망시점)	2020 ^{e)}	2021 ^{f)}	2022 ^{g)}
EU 집행위원회	(2020.11)	8.3	9.4	8.9
OECD	(2020.12)	8.1	9.5	9.1
ECB	(2020.12)	8.0	9.3	8.2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 부가가치세율 환원²²⁾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률은 1%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표 18〉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전망

	(전망시점)	2020 ^{a)}	2021 ^{b)}	2022 ^{b)}
EU 집행위원회	(2020.11)	0.3	1.1	1.3
OECD	(2020.12)	0.3	0.7	1.0
ECB	(2020.12)	0.2	1.0	1.1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HICP) 기준

다. 일본

일본 경제는 미약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재선언²³⁾ 등으로 당분간 부진하겠으나 백신접종 및 방역조치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주요국 경기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표 19〉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20 ^{a)}	2021 ^{b)}	2022 ^{b)}
IMF	(2020.10)	-5.3	2.3	1.7
OECD	(2020.12)	-5.3	2.3	1.5
World Bank	(2021. 1)	-5.3	2.5	2.3
Global Insight	(2020.12)	-5.4	2.6	1.3
IB(57개 기관) 평균	(2021. 1)	-5.3	2.7	1.9
일본은행 ¹⁾	(2020.10)	-5.5	3.6	1.6
일본경제연구센터(35개 기관) ¹⁾	(2020.12)	-5.4	3.4	-

주: 1) 회계연도 기준
자료: 각 기관, Bloomberg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GDP 갭을 마이너스²⁴⁾ 상황 지속, 고용여건 악화, Go-to-Travel 기간 연장(~2021.6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경기가 개선되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소비자물가 전망

	(전망시점)	2020 ^{a)}	2021 ^{b)}	2022 ^{b)}
IMF	(2020.10)	-0.1	0.3	0.7
OECD	(2020.12)	0.2	0.2	0.4
Global Insight	(2020.12)	0.0	0.0	0.7
IB(47개 기관) 평균	(2021. 1)	0.0	0.1	0.5
일본은행 ¹²⁾	(2020.10)	-0.6	0.4	0.7
일본경제연구센터(35개 기관) ¹²⁾	(2020.12)	0.6	0.6	0.6

주: 1) 산선식품 제외 2) 회계연도 기준
자료: 각 기관, Bloomberg

22) 독일은 202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율을 19%(일반품목), 7%(식품 등)에서 각각 16%, 5%로 인하하였다.

23) 정부는 2021. 1. 8일 수도권 4개 지역(도쿄, 지바 등)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13일 7개 지역(오사카, 교토 등)에 추가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오후 8시), 외출자제(오후 8시~), 재택근무 확대(출근자수 70% 감축) 요청 등이 이루어졌다.

24) (실제GDP-잠재GDP)/잠재GDP로 계산되며 플러스의 경우 수요초과 상황을 의미한다.

GDP갭률 추이(%)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내 각 부	0.5	0.7	0.5	-1.6	-2.4	-10.5	-6.2
일본은행	2.0	1.6	1.6	1.2	0.3	-4.8	-3.3

라. 중국

2021년 중국 경제는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높은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민간소비가 향후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수요부문별로는 수출이 글로벌 제품 수요 회복이 지속되면서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부동산개발투자가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다소 둔화되겠으나, 제조업투자는 기업이익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수급이 안정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21 ¹⁾	2022 ¹⁾
IMF	2020.10월	8.2	5.8
OECD	2020.12월	8.0	5.0
World Bank	2020.12월	7.9	5.2
Global Insight	2021. 1월	7.5	5.5
IB 평균 ¹⁾	2021. 1월	8.3	5.4
중국사회과학원	2020.12월	7.8	-

주: 1) Bloomberg 가중평균(1.18일 기준)

자료: IMF, OECD 등

〈표 22〉

소비자물가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21 ¹⁾	2022 ¹⁾
IMF	2020.10월	2.7	2.6
OECD	2020.12월	2.3	2.1
Global Insight	2021. 1월	2.5	1.2
IB 평균 ¹⁾	2021. 1월	1.6	2.3
중국사회과학원 ²⁾	2020.12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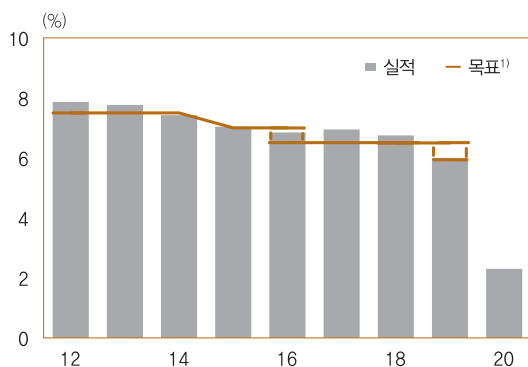
주: 1) Bloomberg 가중평균(1.18일 기준)

2) 금번 경제정책서중 미발표

자료: IMF, World Bank 등

〈그림 25〉

경제성장률 추이



주: 1) 연간 목표치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국무원

마. 인도 및 ASEAN 5개국

2021년 인도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²⁵⁾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본격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지난해 대규모 재정정책 실시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 증가²⁶⁾,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등은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25) 인도정부는 2021.1.3일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로 애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으며, 1.1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였다. 인도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사 간의 계약물량은 약 10억회분에 달한다(Bloomberg, 2021.1.18일 현재). 또한 같은날 자국 회사인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백신도 함께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26) IMF는 인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9년 72.3%에서 2020년 89.3%, 2021년 8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0.10월).

이 있다. 소비자물가는 경제활동의 점진적 정상화로 음식·식료품의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전년도보다 완화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SEAN 5개국 역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및 이에 따른 대외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대체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 정부부채 누증으로 인한 재정여력 제한 등은 하방리스크로 잠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던 공공개발사업 재개,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개선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성공적인 감염증 억제 조치 등에 힘입어 내수 회복과 견조한 수출 증가세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필리핀은 코로나19 감염증 지속 등으로, 태국은 글로벌 관광수요의 더딘 회복세²⁷⁾ 및 정치적 불안정 지속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ASEAN 5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인 대내외 수요 회복,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조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오름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인도 및 ASEAN 5개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18	2019	2020 ^{a)}	2021 ^{b)}
인도 ¹⁾	실적치		6.1	4.2		
	IMF	(2020.10)			-10.3	8.8
	Global Insight	(2020.11)			-10.7	8.9
	World Bank	(2021. 1)			-9.6	5.4
	IB(5개 기관) 평균	(2020.12)			-7.6	10.0
인도네시아	실적치		5.2	5.0		
	IMF	(2020.10)			-1.5	6.1
	World Bank	(2021. 1)			-2.2	4.4
	ADB	(2020. 9)			-1.0	5.3
	Global Insight	(2020.11)			-2.4	2.8
	IB(5개 기관) 평균	(2020.12)			-2.1	4.1
태국	실적치		4.2	2.4		
	IMF	(2020.10)			-7.1	4.0
	World Bank	(2021. 1)			-6.5	4.0
	ADB	(2020. 9)			-8.0	4.5
	Global Insight	(2020.11)			-6.1	3.8
	IB(5개 기관) 평균	(2020.12)			-6.4	4.3
말레이시아	실적치		4.7	4.3		
	IMF	(2020.10)			-6.0	7.8
	World Bank	(2021. 1)			-5.8	6.7
	ADB	(2020. 9)			-5.0	6.5
	Global Insight	(2020.11)			-5.7	5.4
	IB(5개 기관) 평균	(2020.12)			-5.7	6.9
필리핀	실적치		6.3	6.0		
	IMF	(2020.10)			-8.3	7.4
	World Bank	(2021. 1)			-8.1	5.9
	ADB	(2020. 9)			-7.3	6.5
	Global Insight	(2020.11)			-8.5	7.7
	IB(5개 기관) 평균	(2020.12)			-9.2	8.0
베트남	실적치		7.1	7.0	2.9	
	IMF	(2020.10)				6.7
	World Bank	(2021. 1)				6.7
	ADB	(2020. 9)				6.3
	Global Insight	(2020.11)				6.1
	IB(2개 기관) 평균	(2020.12)				7.3

주: 1) 회계연도 기준

27) 세계관광기구(UNWTO)는 글로벌 관광수요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이후에나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0.12월).

〈표 24〉 인도 및 ASEAN 5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전년대비, %)			
		(전망시점)	2018	2019	2020 ^{a)} 2021 ^{b)}
인도 ¹⁾	실적치		3.9	3.7	6.6
	IMF	(2020. 10)			4.9 3.7
	ADB	(2020. 9)			4.5 4.0
	Global Insight	(2020. 11)			6.6 4.4
인도네시아	실적치		3.2	2.8	2.0
	IMF	(2020. 10)			1.6
	ADB	(2020. 9)			2.8
	Global Insight	(2020. 11)			2.8
태국	실적치		1.1	0.7	-0.8
	IMF	(2020. 10)			1.8
	ADB	(2020. 9)			0.8
	Global Insight	(2020. 11)			1.1
말레이시아	실적치		1.0	0.7	
	IMF	(2020. 10)			-1.1 2.4
	ADB	(2020. 9)			-1.5 2.0
	Global Insight	(2020. 11)			-0.8 1.8
필리핀	실적치		5.2	2.5	2.6
	IMF	(2020. 10)			3.0
	ADB	(2020. 9)			2.6
	Global Insight	(2020. 11)			2.9
베트남	실적치		3.5	2.8	3.2
	IMF	(2020. 10)			4.0
	ADB	(2020. 9)			3.5
	Global Insight	(2020. 11)			2.8

주: 1) 회계연도 기준

하나 백신 보급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급은 OPEC+의 점진적 감산 조정, 미국의 더딘 생산 증가 등으로 석유수요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OPEC+의 감산 공조 와해, 이란의 석유수출 재개²⁸⁾,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국제유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25〉 2021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

		(백만배럴/일)			
				증감 ¹⁾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수요	OECD	43.70	45.09	2.37	2.55
	비OECD	52.93	53.84	4.18	2.01
	소계	96.63	98.92	6.55	4.57
공급	OPEC	31.09	33.35	-0.96	4.25
	비OPEC	64.19	65.59	-0.36	2.76
	소계	95.27	98.94	-1.31	7.02
수요-공급		1.35	-0.01	7.87	-2.45

주: 1)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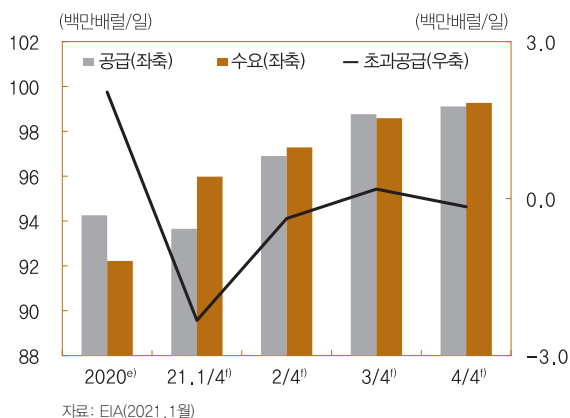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1. 1월)

3. 국제원자재시장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과 함께 OPEC+의 감산정책 유지, 미 셰일생산 둔화 등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기조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석유수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 및 여행 수요가 여전히 부진

〈그림 26〉 2021년 분기별 세계 석유수급 전망



28)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간체제 하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재가입하여 동맹국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란은 '18.4월 원유 생산량이 일평균 382만배럴(OPEC내 3위)에 달하였으나 미국의 핵합의 탈퇴('18.5월) 이후 원유 수출 등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20.12월 200만배럴로 감소한 상태이다.

〈표 26〉

국제유가 전망¹⁾

(기간평균, 달러/배럴)

(전망시점)	2020	2021 ¹⁾					2022 ¹⁾
		연간	1/4	2/4	3/4	4/4	
IHS (2021.1.15)		56.9	55.3	55.4	56.3	60.5	60.1
EIA (2021.1.12)	42.0	52.7	55.7	53.3	51.0	51.0	53.4
OEF (2021.1.14)		51.1	51.2	49.9	50.1	53.2	55.2

주: 1) Brent유 기준

(기타원자재가격)

기타원자재가격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대로 2020년 하반기 이후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 백신 보급속도, 기상여건 등이 변동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표 27〉

기타원자재가격 전망

(전년대비, %)

	2020 ^{e)}	2021 ¹⁾	2022 ¹⁾
World Bank	2.2	2.4	1.3
IMF	5.6	5.1	0.5
OEF	3.7	11.0	-5.6

자료: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2021.1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10월)

OEF, Commodity Price Forecasts(2021.1월)